

2015 국가 교육과정 전문가 포럼(1차)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편성·운영 지침은 무엇인가?

주제발표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초·중학교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중점은
무엇인가?

김 경 자 이화여자대학교 명예교수,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초·중학교 편성·운영 중점*

김 경 자 이화여대 명예교수, 국가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위원장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안] 개발 연구' 연구 책임자

1. 2015 개정 국가교육과정의 배경과 개발 지향점

듀이(Dewey, 1956)와 타일러(Tyler, 1949)를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과정 학자들은 어느 수준에서 교육과정을 개발하든지 국가·사회, 학습자, 교과 전문가로부터의 변화 요구를 균형 있게 파악하고 개정의 방향과 교육의 목적을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개발 연구도 개발의 논리를 수립하고자 교육과정 개발의 기초가 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고,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실행 상에 나타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개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가. 국가·사회적 요구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국가·사회적 요구로부터 시작되었다. 미래 사회를 위해 정부는 '인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인간 관점을 반영한 창의적 융합기술 개발과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융합기술 연구를 지원하며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한다.'는 발표를 하였다(교육과학기술부, 2010; 미래창조과학부, 2014). 교육부(2014)는 이러한 인재 육성을 위해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기본 방향'을 발표하였다.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처음에 용어로 인해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미래 사회에서 우리가 길러야 할 인재는 창의적 융합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모든 학생은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능력을 길러야 하며, 동시에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도록 진로에 따른 선택 학습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으로 정리되었다. 그리고 '창의융합형 인재'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제시되었다.

* 이 발표에 소개된 총론 내용은 현재 진행 중인, 김경자, 홍은숙, 이승미, 한혜정, 온정덕, 백남진, 송호현, 곽상훈, 허병훈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최종안] 개발 연구'에 기초하였다. 발표 내용은 연구 진행 중에 나온 결과로서 다양한 방식에서의 적합성 검토가 필요하며, 최종안이 아님을 밝혀둔다.

나. 학습자 요구

국가·사회적 요구로 인해 촉발된 국가 교육과정 개정 연구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우리나라 학습자의 요구와 최근 학습 과학 동향에 대한 고찰을 필요로 하였다. 여러 가지 국제 비교 지표들은 우리나라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량으로 인한 학습부담, 단편적 지식 교육과 지나친 암기중심 교육 그리고 문제풀이 학습에 매몰되어 행복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넓게 많이 알게 하는 교육(a mile wide and an inch deep education)”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미있어서 몰입하여 학습을 하지 않을 때 학생들은 행복하지 않고 공부에 대한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리고 배울 내용이 너무 많고 이들 내용들이 서로 연결성이 낮을 때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공부를 해도 단기적으로 밖에 그 내용을 기억하지 못한다.

최근 학습 과학의 동향 또한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은 깊이 있는 지식에 이르거나 창의적인 산출물을 도출할 수 있는 사고 활동이 아님을 보여준다. 21세기 핵심 역량은 교육 내용을 재현하는 것을 넘어서야 하며 대다수 학생에게 교과 내용에 대한 심층적 이해가 중요하다. 따라서 교과를 가르치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학생들은 교과의 기저에 놓인 큰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¹⁾를 복잡한 사고를 통해 자기 주도적으로 ‘이해’해야 하며, 그것은 수많은 사실을 암기하는 학습과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다.

다. 교과 전문가의 견해

최근 교과 연구 동향을 살펴보면, 앞서 살펴 본 최근 학습 과학 동향과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은 이해를 통해 학습한다는 원리에 주목하고 소수의 핵심 개념과 빅 아이디어를 교과 내용으로 선정하여 심층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를 통해 다양한 맥락 속에서 그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아주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Bruner(1977)는 당시 교과의 내용을 사소하고 단편적이라고 보았고 교과 내용의 상호관련성과 통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식의 구조’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 후 그의 이론은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와의 일관성을 고려하고 개발자뿐만 아니라 교사가 교과의 담론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데 강조점을 두는 방식으로 발전되었다(Wiggins & McTighe, 2005; Wiske, 1998).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이러한 방식으로 교과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여 실제적으로 학습량을

1) 빅 아이디어는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이기도 하고 하나의 개념이 다른 하나의 개념을 불러오기도 하는데 이 때 비슷한 개념들끼리 묶여진 상위 개념을 의미한다. 빅 아이디어는 어떤 개념보다 포섭력이 클 때 상대적인 의미로 큰 개념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현대에 와서 교과 지식 간, 영역 간, 교과 간의 연결성을 보기 위해서 빅 아이디어가 강조된다. 예를 들어, 역사의 개념들을 묶어서 ‘시간, 영속성, 변화’로 묶게 되면 이는 역사 교과의 빅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절의 변화, 식물의 변화, 동물의 변화’를 묶어서 ‘변화’라는 빅 아이디어를 통해 교과 간의 연계를 볼 수도 있다.

감축하고 미래 사회에 적합한 역량을 기르고자 한다.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선진국의 교과 교육과정 개발 원리가 그것이다. 이러한 교과 내용의 선정 조직 원리는 이제 많은 나라에서 교육과정, 교수·학습, 평가 연구와 개발에 적용되고 있다. 싱가포르가 한 때 교육부 홈페이지 대문에 “적게 가르치는 것이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표어를 내 걸고 교육과정 개정을 진행한 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엘리트 과학교육을 극복하고 모든 사람들이 과학적 소양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에 더 많은 것을 가르치라고 요구하지 말고 아주 중요하고 필수적인 것을 가르치도록 과학 교육과정을 개정 중에 있다.

라.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

국가 교육과정 개정은 앞선 세 가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국가 교육과정 실행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현장에서는 잦은 국가 교육과정 개정으로 인한 피로감과 함께, 현행 교육과정 편제의 중요사항인 집중이수, 창의적 체험활동 실행 상의 문제점, 과도한 범교과 학습주제, 교과 내용의 적정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워야 할 내용이 많고, 교과서 내용은 줄어들지 않아 수업 개선이 어려운 점, 교과 간의 연계성 부족과 시수 부족으로 융합이나 통합이 어려운 점, 교과서가 교육과정을 대체하고 있는 문제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마. 2015 국가 교육과정 개발 지향점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 요구, 교과 전문가의 견해, 현행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기초연구 결과, 몇 가지 개발의 지향점이 수립되었다. 앞선 네 가지 요구들과 다양한 자료원들과의 숙의와 협의를 통해 다음과 같은 개발 지향점이 수립되었다.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 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바탕으로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한다.
- 학생의 성장과 수업개선을 위해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한다.
- 교육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2.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의 주요 개념

앞서 언급한 개발의 지향점에는 몇 가지 새로운 개념이 제시되었다. 인간상 진술과 함께 새롭게 제시된 ‘핵심 역량’, 단순히 양적으로 20%, 30% 감축이 아닌 전체 교과를 아우를 수 있는 핵심 개념 또는 빅 아이디어 중심으로 ‘학습량 적정화’를 하자는 것, 교육과정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이 그것이다. 이는 다른 지향점들을 실현하는 데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가. 핵심 역량

핵심 역량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강조되었으나 교육과정 총론에는 반영되지 못하였다. 역량 또한 앞서 논의한 창의성, 인간상, 기초 소양처럼 학습을 통해 학생이 드러내야 할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심 역량은 전술한 개념들보다 구체성을 띠며, “학생이 교육과정을 통해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지향하며 “지식이나 기능을 뛰어 넘는 것”으로서 “특정 주어진 상황에서 심리·사회적인 자원(기능과 태도를 포함)을 이용하거나 동원하여 복잡한 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05: 5). 총론에서 제시하는 핵심 역량은 창의융합형 인재가 갖추어야 할 일반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교과 역량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교과를 배워서 잘 할 수 있는 교과 특수적 역량을 결정해야 한다.

Remy(1978: 15)는 교과에서 역량을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준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역량은 ① 수적으로 적게 선정되어야 하고, ② 모든 개인이 배경에 상관없이 일상에서 부딪치게 되는 과제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야 하고, ③ 역량은 특정 맥락에 의존적인 상황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맥락 속에서 적용되는 것이어야 하며, ④ 모든 학년에서 지속적으로 가르쳐져야 하고 점차 심화되는 것이어야 하며, ⑤ 학생 개개인에게 의미가 있는 능력이라면 동시에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핵심 역량 기반의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교과 교육과정 개발자는 교과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잘 할 수 있는 그리고 수행으로 드러내야 할 소수의 총체적이고도 복합적인 역량을 규정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나. 학습량 적정화

앞서 논의한 국가·사회적 요구, 학습자의 요구, 교과 전문가의 변화 요구, 현장의 요구를 살펴보면 무엇보다 교과의 학습량 적정화를 변화 방향으로 요청한다. 학습량을 적정화해야 창의 융합적 사고를 기를 수 있고,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학생이 몰입하여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다고 할 때, 학습량 적정화는 이번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 특히 교과 교육과정

개발 연구에서 가장 중점적인 지향점이 된다. 학습량 적정화는 단순한 양의 축소를 의미하기 보다는 소수의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교과 교육과정을 재구조화하는 의미이다.

앞서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적게 가르치는 것이 더 많이 가르치는 것이다(Less is more).” “무엇을 추가할까가 아니라 무엇을 뺄 것인가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교과 교육과정 개발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고 하였다. 우리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과의 전체 구조를 관통하는 소수의 핵심 개념을 결정하고, 이들 핵심 개념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 교과를 이루는가를 보여주는 원리를 찾아야 한다. 또한 교과들을 연결할 수 있는 더 큰 개념과 빅 아이디어와 원리를 찾아야 한다. 교과 간의 연결을 활성화해야 진정으로 창의융합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학생들이 스스로 핵심 개념과 원리를 찾아가도록 탐구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학생들이 한 교과의 학습과 다른 교과의 학습을 연결하면서 능동적으로 자신의 삶과 학습의 문제를 융합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질적인 성격을 따져서 학습량을 적정화 해야 한다. 이는 한 교과의 내용을 양적으로 20%, 30% 감축한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이다.

다.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할 때 그 교육과정은 학습의 수월성과 평등을 보장하게 된다. ‘모든’ 학생을 창의융합형 인재로 기른다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교육 내용, 교수·학습, 평가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학습량을 적정화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성취기준으로 진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성취기준은 학생들이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것을 수행으로 드러내야 할 것을 분명하게 표현해 주어야 한다.

교수·학습에서는 교사가 내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다양한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여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학생이 특정 맥락에서 학습한 내용을 새로운 문제 상황에 적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풍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평가에서는 교사가 진단, 형성, 총괄 평가를 해야 하고,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수행을 통해 드러낼 수 있는가를 평가해야 한다. 그리고 자주 형성 평가를 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수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학습 과정 중에 나타나는 학생의 진보를 알아야 하고, 그 정보를 가지고 교수·학습 개선을 해야 한다. 따라서 핵심 개념을 중심으로 그리고 큰 개념을 통해 교과 내 지식 간, 영역 간, 교과 간 연결을 통해 융합적 사고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수행을 통해 드러나도록 해야 한다면 반드시 수행 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은 교사가 제공하는 피드백에 기초하여 자신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평가하는 자기 평가도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2015 개정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점

을 강조하여 편성·운영 지침과 지원 사항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3.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의 변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시안 개발 연구에서는 문서 체제와 그 내용을 연구하고 있다. 문서 체제는 교육과정 전문가뿐만 아니라 교사, 행정가, 교과서 개발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학교 교육과정이 교육과정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가독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몇 가지 변화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의 '1. 추구하는 인간상'에 핵심 역량을 제시한다. 둘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을 '2.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제목을 수정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정 방향에 맞추어 각 항목에 합당한 내용들을 새롭게 제시한다. 기존에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부분에 제시되었던 내용은 정선하여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첫 항목으로서 '1. 학교 급별 공통 사항'에 제시한다. 셋째, 2009 개정 교육과정의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4. 학교 급별 공통 사항'에 열거되어있던 지침들은 '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이라는 새로운 장을 마련하여 '1. 기본 사항, 2. 교수·학습, 3. 평가, 4. 범교과 학습 주제, 5.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 등의 항목으로 유목화하여 제시한다. 특히 과도한 범교과 학습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고 주제별 관련 내용요소를 제시한다. 넷째, '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부분에 제시되었던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을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뒤에 제시한다.

이상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문서 체제상의 변화를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총론 문서 체제와 비교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문서 체제
교육부 고시 일정	교육부 고시 일정
교육과정의 성격	교육과정의 성격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1. 추구하는 인간상 2. <u>교육과정의 중점(새로운 내용)</u>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교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 1. <u>학교 급별 공통 사항</u> 2. 초등학교 3. 중학교 4. 고등학교 5. <u>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u>

<p>4. 학교 급별 공통 사항</p>	<p><u>III.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u> <u>1. 기본 사항</u> <u>2. 교수·학습</u> <u>3. 평가</u> <u>4. 범교과 학습 주제</u> <u>5.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기회의 제공</u></p>
<p>III. 학교 교육과정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2. 특수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p>	<p>IV.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1. 국가 수준 지원 사항 2. 교육청 수준 지원 사항</p>

4.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변화 내용

이하에서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주요 변화 내용을 ‘I.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과 관련하여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진술’,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목표’,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해서는 ‘1. 학교 급별 공통 사항’,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관련된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스포츠클럽활동’ 편성·운영 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후, 교육과정 개정 시기 때마다 문제로 지적되어 온 과도한 범교과 학습주제 관련 지침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핵심 역량 진술

추구하는 인간상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의 연속선상에서 연구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홍익인간 다음에 인간상을 진술하고, 학교 급별 목표를 진술하던 방식에서 인간상을 진술한 다음 이러한 인간이 드러내야 할 능력을 ‘핵심 역량’으로 구체화하여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전에 다면적이고 복합적으로 진술되어 온 인간상을 좀 더 명료하게 진술하고자 하였고,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상이 교과 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을 편성·운영하는 데 실제적 지침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추구하는 인간상은 홍익인간의 이념아래 ‘창의융합형 인재’로 제시하고 인간상을 제시한 다음, 이에 대한 의미를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런 다음,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핵심 역량을 구체화하여 인간상 다음에 제시하였다. 학생들이 습득해야 할 일반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으로 제시하였다. 이 역량을 갖춘 인간상을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 부르고, 이것을 통해 홍익인간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핵심 역량은 여섯 가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미를 진술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자주적인 사람	가. 자주적인 사람은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창의적인 사람	나. 창의적인 사람은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다.
교양 있는 사람	다. 교양 있는 사람은 문화적 소양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이다.
더불어 사는 사람	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 교육과정을 통해 기르고자 하는 핵심 역량은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적 역량이다. 그 의미는 다음과 같다.

- 가. 자기관리 역량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적 능력 및 자질을 기르고,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 나. 지식정보처리 역량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 다. 창의융합적 사고 역량은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이다.
- 라. 심미적 감성 역량은 문화적 소양과 감성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태도를 갖추고 삶의 질과 행복을 창출하고 향유하는 능력이다.
- 마. 의사소통 역량은 다양한 삶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타인과 소통하며 갈등을 조정하는 능력이다.
- 바. 공동체적 역량은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실천하고 공동체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이다.

나.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 급별 목표

초, 중, 고등학교 교육목표²⁾는 앞서 제시한 인간상과 일관 되는 방식으로 진술하여 각 학교급을 마칠 때 도달점으로서의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초, 중, 고등학교 교육 목표는 다음과 같다.

인간상	초등학교 교육목표	중학교 교육목표	고등학교 교육목표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일상생활과 학습에 필요한 기본 습관, 기초 능력,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중학교의 교육은 초등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본 능력과 바른 인성, 민주 시민의 자질 함양에 중점을 둔다.	고등학교 교육은 중학교 교육의 성과를 바탕으로, 학생의 적성과 소질에 맞는 진로 개척 능력과 세계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

2) 이 발표 내용은 초, 중학교에 한정되지만, 비교를 위해 고등학교 목표를 함께 제시하였다.

자주적인 사람	(1)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기르며, 풍부한 학습경험을 통해 꿈을 찾아 표현한다.	(1)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기르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적극적으로 삶의 방향과 진로를 탐색한다.	(1) 성숙한 자아의식과 바른 품성을 갖추고,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 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
창의적인 사람	(2)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2) 학습과 생활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바탕으로, 도전정신과 창의적 사고력을 기른다.	(2) 다양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융합하여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
교양 있는 사람	(3)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고 자연과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심성을 기른다.	(3)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나라와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기른다.	(3) 인문·사회·과학기술 소양과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더불어 사는 사람	(4) 협동정신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며 규칙과 질서를 지키는 습관을 기른다.	(4)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타인과 공감하고 소통하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4)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을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세계시민으로서의 자질과 태도를 기른다.

다. 교육과정의 중점

교육과정의 중점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인간상과 핵심 역량을 기르기 위해서 ‘교육과정의 구성 방침’ 항을 교육과정의 중점으로 변경하였다. 앞서 이 교육과정의 지향점으로 제시한 내용만 중점으로 강조하고,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학교 급별 편성·운영과 관련된 내용들은 각기 해당 항으로 이동, 수정하였다. 특히 총론의 방향과 각론의 개정 방향이 일관성을 갖도록 ‘학습량 적정화’를 중점 사항으로 명기하였다.

이 교육과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 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 역량 함양을 기반으로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추구한다.
- 나. 인문·사회·과학기술 기초소양의 균형 있는 함양을 바탕으로 진로에 따른 선택학습이 가능하게 한다.
- 다. 학습의 질 개선을 위해 핵심개념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엄선하여 학습량을 적정화한다.
- 라. 학생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수업을 강조한다.
- 마. 학생의 성장과 수업개선을 위해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는 평가를 강조한다.
- 바. 학습내용, 교수·학습, 평가의 일관성을 도모한다.

라. 학교 급별 공통 사항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9 개정 교육과정 총론 ‘1.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중 ‘2. 교육과정 구성의 방침’ 부분에 제시되었던 대부분의 내용은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의 ‘1. 학교 급별 공통 사항’에 배치하였다.

II. 학교 급별 교육과정 편성과 운영

1. 학교 급별 공통 사항

- 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선택 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한다.
- 나.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는 교육 목적상의 근접성, 학문 탐구 대상 또는 방법상의 인접성, 생활양식에서의 연관성 등을 고려하여 교과군으로 재분류한다.
- 다. 선택 교육과정은 보통 교과와 전문 교과로 구분하고, 학생들의 기초 소양 함양과 기초 학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통 교과에 공통 과목을 신설한다.
- 라. 학년 간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학년군을 설정한다.
- 마.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 조정을 통한 학습부담 적정화와 의미 있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집중이수를 실시한다.
- 바.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하고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사. 학교 교육과정 평가, 교과 평가의 개선, 국가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 실시 등을 통해 교육과정 질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아. 모든 교육 활동을 통해 인성 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마. 중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1) 자유학기 지침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학교에서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운영한다는 지침이 새롭게 제시된다. 자유학기는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 영역들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명칭 면에서 중복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한다고 할 때 그 연계성과 차이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학교 자율에 맡길 것인가에 대한 것도 쟁점이 될 수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이 재구조화가 된다면, 그에 따라 자유학기 편성·운영에 대한 다양한 안들도 좀 더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수정 중인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 (10)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
 - (가) 자유학기에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을 연계하여 다양한 탐구 및 체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교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한다.
-
-

-
- (나) 자유학기에는 학생 활동과 참여 중심의 수업을 확대하고 수행 평가 등 과정 중심의 평가를 강조한다.
 - (다) 자유학기에는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진로 탐색 활동, 주제 선택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체육 활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라) 학교는 자유학기의 운영 취지가 다른 학기에도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침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중학생의 신체 활동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신체 활동을 통하여 또래 간 바람직한 관계를 형성한다는 데에 초점을 두고 2012년 7월에 고시된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에 따른 국가 교육과정 총론에 반영되었고, 교육부 고시 제2013-7호에 따라 일부 수정이 이루어졌다. 박순경 외(2014: 52-53) 연구에서는 이러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문제점으로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이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 영역에 편성되는 불합리성, 정규교과로서의 체육과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상호 대체 부적절성,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시수를 마련하라는 방침의 부적절성 등이 지적되고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러한 현장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반영하여 학교스포츠클럽활동 관련 지침을 개선하고자 한다. 현재 수정 중인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지침(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 (11)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과 정서 함양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의 ‘동아리영역(활동)’에서 매 학기 편성·운영한다.
 - (가)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은 교과(군)별 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감축하거나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를 순증하여 연간 34~68시간(총 136시간)을 편성한다. 단, 여건이 어려운 학교의 경우 68시간 범위 내에서 기존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
 - (나) 연간 68시간 운영하는 학년에서는 34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을 체육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다) 학교스포츠클럽활동 중 34시간은 학생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예술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자유학기에는 예술·체육 활동으로 편성한다.
 - (라)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의 종목과 내용은 학생들의 희망을 반영하여 학교가 정하되, 다양한 종목을 개설함으로써 학생들의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한다.
-

바.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안)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제시된 범교과 학습 주제는 10개의 대주제로 범주화하여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39개 주제를 10개의 대주제로 재편성하였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현행대로 할애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개의 대주제는 ‘안전·건강교육, 인성교육, 진로교육, 민주시민교육, 인권교육, 다문화교육, 통일교육, 독도 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생활경제교육’이다. 대주제의 타당성과 범주는 현장과의 고려 속에서 좀 더 논의되

어야 할 것이다. 범교과 학습 주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4. 범교과 학습 주제

범교과 학습 주제는 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육 활동 전반에 걸쳐 통합적으로 다루어지도록 하고, 지역 사회 및 가정과 연계하여 지도한다.

가. 범교과 학습 주제와 주제별 관련 내용요소

- (1) 안전·건강교육: 안전·재난대비, 성, 보건, 영양·식생활
- (2) 인성교육: 인성(효도·경로·전통윤리 포함), 생명존중 및 자아정체성
- (3) 진로교육: 진로탐색, 창업(기업가)정신, 근로자의 권리와 의무, 여가활용의 실천
- (4) 민주시민교육: 자유·평등, 청렴·반부패, 법 정신 이해와 법 질서 함양
- (5) 인권교육: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아동, 청소년, 장애인, 양성평등 등), 폭력예방(학교폭력, 가정폭력 등), 노동인권의 이해
- (6) 다문화교육: 다양성의 존중, 세계시민(국제이해)
- (7) 통일교육: 통일대비, 국가정체성 함양, 호국보훈정신, 나라사랑
- (8) 독도교육: 영토개념의 이해, 독도의 이해
- (9) 지속가능발전교육: 저출산·고령화사회대비, 환경, 물보호, 에너지, 농·수산생명
- (10) 생활경제교육: 경제·금융,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복지와 세금, 지적재산권

나. 다음의 주제는 범교과 학습 주제로 포함하지 않으나, 관련 교과(군)의 연계 학습을 통해 충실하게 다뤄지도록 한다.

- (1) 한국문화사교육: 사회(역사포함), 예술(음악/미술) 등
 - (2) 문화예술교육: 예술(음악/미술), 사회(역사) 등
 - (3) 미디어교육: 국어, 도덕, 사회, 예술(음악/미술), 실과(기술·가정) 등
 - (4) 정보화 및 정보화 윤리교육: 실과(기술·가정), 정보, 도덕 등
 - (5) 의사소통·토론중심교육: 국어, 영어(외국어), 사회(역사포함)/도덕 등
 - (6) 논술교육: 국어(논술), 사회/도덕 등
 - (7) 한자교육: 한문, 역사, 창의적 체험활동(초등학교) 등
-
-

이상에 제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지침의 주요 변화내용들은 앞으로 현장 교사를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치밀하게 다듬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2010). 창의인재와 선진과학기술로 여는 미래 대한민국. 2011년 업무보고 (2010.12.17).
- 교육과학기술부(2012).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 교육부(201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제 2013-7호.
- 교육부(2014). 2015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시안).
- 미래창조과학부(2014). 범부처 국가 융합기술 발전전략 마련. (2014.3.4. 보도자료).
- 박순경 외(2014). 국가 교육과정 총론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CRC 2014-1.
- Bruner, J. S. (1977). *The process of education*. Cambridge, MA; Havard University Press.
- Dewey J. (1956). *The child and curriculum*.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OECD. (2005). *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ies: Executive summary*. Retrieved from <http://www.oecd.org/pisa/35070367.pdf>
- Remy, C. (1978). *Handbook of basic citizenship competencies: Guidelines for comparing materials, assessing instruction and setting goals*. Alexandria, VA: ASCD.
- Tyler, R. W. (1949). *Basic principles of curriculum and instruc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ggins, G, & McTighe, J. (2005). *Understanding by design(Expanded 2nd ed.)*. Alexandria, VA: ASCD.
- Wiske, M. S. (1998). *Teaching for understanding*. CA: San Francisco: Jossey-Bass Publishers.